

## 봄이 왔네

의과대학 의학과 권 이 혁

2009년 겨울의 기상(氣象)은 참으로 무질서했다. 무질서라는 뜻은 삼한사온의 규칙성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혹한(酷寒)은 아니지만 쌀쌀한 날씨가 주춤없이 계속되었던 것을 말한다. 그런 까닭에 생활분위기도 그만큼 좋지 않았다. 2010년에 들어와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는가 하면 연초에는 폭설(暴雪)로 많은 사람들이 곶탕을 먹기도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슷한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는 1m에 가까운 폭설로 연방정부가 5일 간 휴무하는 진풍경이 발생하기도 했고, 프랑스에서는 때 아닌 홍수로 인한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후 변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이지만 2010년 1월 12일에는 아이티(Haiti)에서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도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가 없어지다시피 됐고 23만명 이상이 사망했는가 하면, 2010년 2월 27일에는 칠레(Chille)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하여 전 세계에 극심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칠레에서는 고강도의 여진이 100회 이상 발생했고 쓰나미가 태평양 53개국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아이티 지진의 1,000배 정도의 위력이었다는 칠레의 지진은 칠레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진들의 신속한 응급 대책과 지진의 질 때문에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아이티의 경우와 비교되기도 했다.

칠레에 관하여는 떠오르는 장면이 많다. 나는 1992년 8월부터 1996년 8월까지 4년 간 대한민국 학술원회장직을 맡았었는데 이 동안에 영국, 프랑스 등 외국 학술원과 교류협정을 맺었다. 영국에는 두 개의 학술원이 있다. 하나는 인문사회분야의 'British Academy'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과학의 'Royal Society(왕립학회)'이다. 이중 Royal Society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하다. 나는 93년 8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학술원회장으로서는 영국의 양 학술원, Oxford대학, 독일 교육과학부·연구기술부를 방문한 일이 있다. 독일에는 중앙에 학술원 조직이 없고 지방에만 있다. 런던에 체재하는 동안 British Academy와는 교류협정을 맺었는데 Royal Society는 좀 더 숙고하자며 그해 10월에 Chille에서 열리는 국제과학 연합(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 ICSU)에서 체결하자고 했다. ICSU는 전 세계의 각 학술원에서 대표를 보낸다.

예정대로 그해 10월 2일부터 3일 간 칠레의 수도 Santiago에서 제 24차 ICSU 총회가 열렸고 나는 외우 장세헌(張世憲·화학) 학술원 회원과 함께 참석했다. 김사람도 동행했다. 10월 4일 회의가 끝난 후 나는 Royal Society 대표와 교류협정에 조인했다.

당시 칠레는 남미 제일의 강국이었으며, 특히 2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왕궁건물은 위엄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강진 참상을 TV에서 보니 이 왕궁 건물조차도 부분적으로 붕괴되어가는 광경을 보고 심정이 착잡해졌고 자연의 위력에 대한 인간의 작은 힘을 다시한번 느끼게 됐다.

2010년 3월 4일 대만 남부 가오슝에서도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2010년 2월 26일(목) 서울대학교에서는 제 64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예년과 같이 체육관에서 거행된 졸업식에는 졸업생보다 학부모형으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목을 끈 사실은 박사학위 취득자의 좌석이 텅 비어 있었던 일, 교기에 대한 경례 등이었다.

그런데 이들 사실보다 더욱 특별했던 것은 그야말로 졸업식날이 봄날이었다는 사실이다. 졸업생들도 손님들도 외투를 입은 사람이 없었고, 가운을 입은 나는 더움을 느끼기까지 했다. 원래 서울대학교 졸업식 날은 출기로 유명했고, 외투를 입고 그 위에 가운을 입어도 별별 떨기가 일쑤였다. 어찌된 일인지 2010년 2월 26일은 예외였다. ‘봄이 왔네’라는 기쁨이 저절로 느껴지는 날이었다. 얼마나 기다려지던 봄인가. 이상스럽게도 졸업식 날을 전후해서 봄이 찾아온 것이다. 따뜻한 봄 날씨가 향기를 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청춘을 맛보게 하는 듯 했다.

나의 일생 중에서 이와 같이 따뜻한 봄 날씨에 졸업식에 참석한 적은 없었다. 이제까지의 졸업식 날은 예외없이 매섭게 추운 날씨였다. 옛 졸업식에서 생각나는 모습을 두 장면만 소개한다. 첫째는 1958년 2월 26일 거행되었던 졸업식에서 보았던 일이다. 졸업식은 언제나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이 날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참석하셨다. 대학로에 있었던 옛 문리대 운동장에서 거행되었던 졸업식 날은 참으로 모질게 추웠다. 이 대통령께서는 식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단상에 앉아 계셨다. 당시의 총장 윤일선(尹日善) 박사가 축사를 부탁하였지만 일언반구 말씀하시지 않고 식이 끝나자 자리를 뜨셨다. 나에게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거룩하게 보였다. 웬만한 사람이면 일부러라도 자신의 존재를 자랑할 터인데 이 대통령은 그렇지 않으셨다.

잊혀지지 않는 장면의 하나는 모 학장이 이 대통령에게 다가가더니 “각하! 바람이 불고 몹시 추운데 제가 방패막이를 해 올리겠습니다”하고 대통령 옆에 서 있던 장면이다. 바람이 부는 쪽에 서서 있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아부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생각했다.

둘째 이야기는 내가 서울대 총장 시절에 겪었던 1982년 졸업식 때의 일이다. 졸업식은 관악캠퍼스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역시 몹시 추운 날씨였다. 당시는 학생시위가 맹렬했던 시절이었다. 남덕우(南應祐)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기 위해 등단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졸업생들이 “위위”하며 떠들었다. 졸업식이 끝난지 2시간 후에 나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했다. 당시 총리실은 구 조선총독부 청사 안에 있었다. 입실하니 총리의 안색이 별로 였다. 나는 “졸업식 때에는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남총리이니 그런 정도이지 다른 분이였다더라면 훨씬 더 했을 겁니다”

하면서 당시의 학생사회 동태를 설명했다. 남 총리도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졸업식에는 총리 참석이 중단되었으며 문교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문교부장관 참석도 중단되었다.

졸업식에 얽힌 일화는 허다하다. 근래에는 졸업생 대표의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대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인 것이니 수석 졸업자의 대부분이 여학생이라는 이야기다. 졸업생 대표답사지도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는 남자 대표가 답사를 했는데 예외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계절에는 봄·여름·가을·겨울이 있다. 인생도 유년기·소년기·청년기·장년기·노년기로 구분된다. 계절이 1년 단위인데 대하여 인생은 사람의 생애를 단위로 하고 있는 까닭에 양자를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들은 곧잘 사계절과 인생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무어니 무어니 해도 사계절 중에 기다려지는 계절은 봄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까닭이다. 인생의 봄은 청년기에 해당한다. 낭만적인 표현으로는 청춘기이다.

계절상의 봄은 매년 오는 것이지만 인생의 청춘은 한번 뿐이다. 그러니 인생의 봄인 청춘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값진 시절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누구나 청춘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물론 힘든 일이다. 그러나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청춘을 회구하는 마음, 언제나 청춘을 꿈꾸는 생활철학은 그자체가 아름답다. 언제나 청춘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나의 견해다. 늙었다고 해서 청춘을 멀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한다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다. 언제나 인용되는 신약성서의 구절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The truth is, a kernel of wheat must be planted in the soil. Unless it dies it will be alone—a single seed. But its death will produce many new kernels—a plentiful harvest of new lives.)”-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모든 생물이 죽음에 이어 많은 생명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 사실 식물의 종자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식물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항상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봄이 오면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들은 봄을 몹시 기다리게 된다.

청춘이 되려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늙은 사람이 주책 부린다고 홍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는 이러한 고령자를 홍보는 사람을 홍보한다. 청춘에는 연령이 없는 법이다. 신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지만 마음가짐이나 정신력이 이 과제를 달성시켜 줄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청춘을 꿈꾸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나는 종종 생각한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올해(2010년)의 봄에는 언제 나오는 다른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와 서울대 졸업식 날에 절정에 달하더니, 얼마 후에 춘삼월(春三月) 눈 폭탄이 내렸다. 3월 10일

현재로 강원도 지방에는 연 1주일 간 폭설이 내려 대관령에는 21년만의 최고 적설량인 108.8cm를 기록하는 등 각종 기상기록을 경신했다.

서울에는 13.5cm의 눈이 쌓였는데 3월 중순 기록으로는 1922년: 31cm, 2004년 18.5cm · 18.2cm에 이어 4번째 적설량이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101년 만에 가장 많은 적설량인 37.5cm에 이어 5년 만에 큰 눈이 내렸다.

어쨌든 춘 3월에 폭설이 전국적으로 내린 일은 희한한 일이다. 기상청에서는 그 원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연의 위력에 대한 인간의 무력을 개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아쉽기만 하다. 나는 기상이 망령이나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농담도 가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생의 여러 시기에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봄철이나 청춘이 아름답고 언제나 우리들이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은 누누이 적어 왔지만 봄철뿐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가을철에도, 겨울철에도 아름다움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철에서는 정열을 느낀다. 연애를 하려면 여름같이 뜨겁게 하라는 말도 있다. 뜨겁기만 한 여름은 나름대로 뜨겁기 때문에 맞볼 수 있는 정취(情趣)가 있는 것이다.

친고마비의 가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선한 바람에 매료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가을에는 추석이 있고 풍요로운 수확이 있다. 모든 것이 익어가는 계절이다.

겨울에는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멋이 있다. 나뭇잎이 없이 나뭇가지만 달린 채 서 있는 가로수가 뜻 깊은 추상화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 나는 한때 파리를 방문했을 때 겨울철의 파리 풍경에 상당히 매혹되기도 했다. 그런데 요사이 서울의 겨울철 풍경에서 이러한 정취를 느낀다. 오늘날의 서울이 세계의 서울이 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더 설명할 나위가 없다. 전에도 소개한 바 있지만 서울대총장 시절에 크리스마스를 몇일 앞둔 어느 날, 사계절이 없는 나라에서 온 모 대학총장의 방문을 받았다. 마침 창 밖에서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장관이었다.

창밖을 보고 있던 외국인 총장이 ‘저 눈이 녹게 되면 어찌 됩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다소 기분이 언짢았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더니 상대 총장은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눈이 녹으면 봄이 오고 꽃이 핀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다. 여유 있는 교육을 시키라는 뜻이다.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인생에는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이 있는데 그때그때 아름다운 점이 있게 마련이다. 대별하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는 법이다. 인생의 사계절을 멋지게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청년기나 청춘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